

해의 불교 공동체 어느 곳이 있나

단절된 존재의 고리, 사회적 유대의 해체, 파편화된 삶의 일상화, 고독사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인류가 오랜 세월을 걸쳐 꿈꿨던 공동체적 정신과 삶일 것이다.

이제 종교도 물질문명과 핵가족화시대에서 파생된 삶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 함께 어우러지는 삶, '나'라는 협소한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간적 유대와 배려가 살아 있는 공동체적 삶의 길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종교의 첫 출발은 공동체의 형태로 시작됐다.

특히 불교의 역사를 보면 끊임 없이 공동체를 지향해 왔다. 불교사는 절속(絶俗)과 은둔이 아니라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과정이었다. 불교 교단은 승가(僧伽, Sangha)라는 전통과 함께 출발했고, 사부대중 공동체인 승가는 철저한 공동체를 지향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공부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승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승가는 공동체에 대한 불교적 모델이다.

건강한 수행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특히 중국의 여산해원 스님에 의해 결성된 백련결사 운동은 수행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수행 공동체로는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태국의 아소케공동체, 캄보디아의 사방승가운동, 미얀마의 마하시 명상센터 등이 있다. 공동체 운동은 분명 불교를 건강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세속화로 치닫는 타락을 극복하게 하는데 공헌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적인 수행 공동체를 조망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글=김주일 기자

근본불교서 가르치는 '호흡관법' 주로 수행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플럼빌리지 국제수행센터는 1982년 베트남 선사인 틱낫한 스님에 의해 설립됐다. 깨어있는 삶을 위해 수행하는 비구, 비구니, 재가남성 불자, 재가여성불자들이 구성된 4개의 수행 공동체를 포괄한다.

도로노뉴 시골지역에 폐 농가의 시설을 이용해 숙소를 만들어 시작된 것이, 지금은 200명의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재가불자들이 총 3개의 마을을 이루어 사는 규모로 성장했다. 비구와 남성불자들은 테낙에 위치한 '윗마을'에서 거주하며, 비구니와 여성불자들은 루브-베르나, 디유리보에 위치한 '아랫마을', '새마을'에 거주한다. 플럼빌리지 상가 공동체는 플럼빌리지 국제 상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찾아온 다양한 국적의 수행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틱낫한 스님은 800여 명 이상의 자선의 상좌로 받아들였고, 수행 본부를 프랑스에 두고, 세계 각 도처에 수행센터를 만들었다. 독일의 '생활불교 유럽회', 미국 캘리포니아 '디아파크 승원', 뉴욕 '블루클립프 승원', 미시시피 '매그놀리아 그로브 승원', 태국 팍총 '태국 플럼빌리지 수행센터', 홍콩 '생활불교 아시아회', 말레이시아 사얌람 '함께 하는 마음챙김 수행센터', 호주 빅토리아 '보퍼트 임류 승원' 및 베트남에도 있다.

프랑스 플럼빌리지가 최초 수행센터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플럼빌리지를 그대로 플럼빌리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특별히 다른 기능이 있는 센터를 제외하고는 각 나라에 있는 센터들을 모두 플럼빌리지 태국지부, 플럼빌리지 홍콩지부, 플럼빌리지 독일지부 등으로 부

르고 있다.

플럼빌리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자 찾아오는 수행자들을 연중 환영한다. 매년 여름마다 1달 동안 운영되는 '열린 플럼빌리지 명상 수련회'에 2012년에는 50개국 4,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해 1주일 혹은 그 이상 머물면서 수행하였고,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영적으로 즐겁게 맞이하기 위하여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틱낫한 스님은 전 세계를 두루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플럼빌리지의 불교는 고통과 아픔을 평화와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생활불교다. 일상생활에 무상, 무아, 열반의 가르침을 적용한다.

플럼빌리지 수행의 기초는 부처님 당시의 근본불교에서 가르치는 '호흡관법'을 바탕으로 한다. 수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플럼빌리지는 인도 4세기 스님이자 사상이었던 아상가와 바수반두가 창시한 마음과 의식에 대한 가르침인 유식, 즉 유가행파를 따르고 있다.



플럼빌리지를 이끌고 있는 틱낫한 스님.

국경과 종파 초월하며 생태주의 원리에 충실

캄보디아공동체 사방승가 운동

사방승가(四方僧伽) 운동은 일본어로는 '시호상가(しほせんが)'로, 영어로는 '카투디사 상가 (Catuddisa Sangha)'라고 부른다. 2000년에 캄보디아로부터 시작된 사방승가운동은 취지문을 통해 "사방 승가는 동서남북,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하나의 커다란 승가(화합승)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본래의 근본 가르침이며,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이뤄야 할 부처님의 대원입니다."라며 "지금 세계의 불교도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손을 잡고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교의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세상에 구체화하려고 합니다."라며 결성의지를 밝혔다.

기본 실천원칙은 ① Self - sufficiency (순환적이고 자족적인 삶) ② Dharma Practice (마음의 수행) ③ Autonomy (자율적인 자치와 상호 부조적인 연계) 등 3개의 화두를 갖고 있다. 현재 이 사방승가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국경, 종파를 넘어 주로 아시아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플뿌리 네트워크는 현재 일본, 대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티베트(인도 국내), 티베트(중국), 위구르(중국), 몽골, 러시아의 칼미크 부랴트, 투바 등의 3개 공화국,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의 20개국에 이미 활동중이거나, 활동을 시작중이다.



캄보디아 스님들. 이들은 하나로된 사방승가를 꿈꾼다.

그런데 이 사방승가운동은 바람직한 환경운동이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개발협력운동이자, 근본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의 요소를 골고루 갖췄다. 이 운동은 그야말로 생태주의 원리에 아주 정확하게 충실하고 있는 환경운동이기도 하지만, 개발국가들의 자립적인 개발 지원방식으로 아주 적절하고 또한 불교적인 가르침과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개발운동이자, 모든 나라가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서로 긴밀히 네트워크되고 있는 평화운동이기도 하다. 이 운동은 각 국가간의 경쟁과 대립을 어떻게 종식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아시아국가들의 마을단위의 자립적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는 적게...남은 것은 모두 사회 환원

태국의 아소케공동체

태국불교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태국불교개혁운동이 발생하게 됐고, 이는 '아소케 불교 공동체'가 성공을 거둔 후에는 특히 더 큰 힘을 받았다.

아소케 공동체는 마을 단위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과도한 물질적 소유를 부정하고, 아소케 구성원들은 최소한으로 생존에 필요한 물질만을 소유하며 '복'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보시를 실천한다. 1969년, 아소케 수행을 하는 승려들과 재가불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러한 삶의 철학을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체계화시켰다.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최소화시켰다. 1975년 초, 지도자 프라 보디라(전직 성공한 TV 연예인)이 태국 승려 위원회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를 모두 적용한 수행법을 만든 뒤에 방콕 북쪽 외곽지역에 '산티 아소케'라는 첫 번째 공동체를 창설했다. '아소케'란 단어는 '고통 없음'을 뜻하는 것이



식사 준비중인 아소케공동체 사람들.

고 '산티'는 '평화'를 뜻한다. 의·식·주 및 약의 4가지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만이 오묘한 마음이 야기하는 사치스러운 삶을 방지한다. 아소케 공동체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들이 유일하게 얻는 이익은 '복'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Tun-ni-yom)를 거부하며, 복 짓기 주의(Bun-ni-yom)에 대한 열정을 키운다. 복 짓는 수행을 통해 오욕이 지켜지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성취되며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불교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통적 운동이다. 2004년에는 4개의 힘을 기본으로 한 '복 짓는 단체(Bunniyom Society)'가 태국 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기도 했다.

아소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마을, 사원, 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아소케 소비 시스템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다. 그 원칙은 말과 행동, 생각에 있어서 친절하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행동하기, 공동으로 소비하기이다. 이들은 "적게 소비하며 많이 일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라는 슬로건에 따라 생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공동소비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이변 생애에 지은 '선업(善業)'이 다음 생애에는 반드시 좋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며, 이번 생애 지은 행위의 결과라고 믿는다.

더 작은 규모로 아소케를 따르는 회원들의 공동체들이 있다. 아소케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건강과 영적 수행을 위해 맨발로 걸어다니며, 공동체의 슬로건인 '적게 소비하고 많이 일하자'에 따라 식사는 하루에 1~2끼만 한다. 그럼으로써 요리하고 먹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수행하고 남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사념처관 기본으로 순수 위빠사나 수행 선호



미얀마에서 수행중인 수련생들.

미얀마의 마하시명상센터

미얀마 양곤에 있는 마하시 수도원은 사념처관(四念處觀) 수행을 기본으로 순수 위빠사나 수행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매일 법문과 인터뷰를 통해 수도자들의 수행력을 바로 잡는 지도방법으로 전 세계인을 수행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등을 끊는 수행을 말한다.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 불교권에서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불교 수행

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하시 수도원은 1947년 마하시 대선사가 세운 것으로 현재 약 70여개 이상의 건물이 있으며 한번에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종교와 국적을 떠나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좋은 것만 먹고, 듣고, 느끼고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이 이치다.

단,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행선할 때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공부를 지어지 되 다리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지 말고 다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감각에만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라고 가르친다.

마하시 수행법은 위빠사나 명상이다. 마하시 사야도 선원장이 지도한 수행법은 초심자에게도 쉬운 것이었다. 모든 초심자에게 쉬운 방법이기엔 단기간 동안의 수행으로도 정신집중에 도달하게 된다. 마하시 사야도는 현명한 사람이었기에 초심자와 수행 경험이 전문한 사람을 위해 배의 움직임의 지켜보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들은 마하시 수행센터로 와서 단기간에 마음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모든 수행자는 마하시 사야도의 수행 방법에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고통이 달한 실용적 수행 방법은 마하시 수행센터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총주	정진재 법원	총무원장	운산 도일
주유	주 무봉 성우	주	유림 장
강	나금산 지환	주	우암 양관
주	지삼호 성문	9교구 광역신도회장	류병선
주	동화사신도회장	동화사신도회장	한삼화
사부대	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동화사
TEL : 053)982-0101~2 / FAX : 053)985-4405
www.donghwasana.net

《사회복지재단》
동화사자비원, 동원어린이집, 선유어린이집,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자비의집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지종	부주	지일해재원	총무국장	동진
수좌	중봉성파	기획국장	영랑	교무국장	진응
주지	원산도명	재무국장	문수	사회국장	도안
유	나천진보탑	포교국장	선본	호법국장	현중
울	주중산혜남	원주	마벽	농감	도훈
강	주현진지형				
울원	장우설덕문				
박물관	장무애무애				
도감	현담현기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